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관총현

발행인 : 이 중 운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제3차 총현올림픽 금주 화요일에 8시 30분까지 입장 완료

드디어 제 3 차 총현 올림픽의
광파제가 5월 21일 우렁차게 울
려 퍼진다.

75년과 89년에 이어 개최되는
제 3회는 대회 규모나 준비, 기
회, 조직, 연습을 위해서 많은 시
간과 알찬 대회를 이루려고 기도
하며 우승의 고지를 향해서 이제
그 열기가 한창 무르익고 있다.

이날은 “모였노라, 잡았노라,
이기었노라.”라는 표어가 말해
주듯이 2만 총현 가족이 다 함께
한 마당으로 모이는 날이 될 것
이다. 또 은혜받은 성도들의 대
합창인 할렐루야의 영광이, 88서
운올림픽의 광장이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온 누리에 메아
리침으로서 성도의 교제와 그리

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들이 만나
고 사랑하는 현장이 될 것이다.

소식권에 게시된 길이 20m, 폭
2m의 대형 현수막이 시선을 끌
며 대회장인 제1체육관 안팎의
애드벌룬과 장내의 전광판과 불
만한 가장행렬의 입장식과 실내
경기장의 장집을 살린 화합과 승
리를 다짐하는 응원전은 기대할
만하다. 또 올림픽의 서막인 가장
행렬과 입장식에 일신여상(오동
술 교장) 관악대가 특별 초청되
어 대회 분위기를 한껏 고양할 것
으로 알려졌다.

특히 각 교구 단위를 지양하고
연합교구로서의 조직을 대원칙으
로 하여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세기동인 교육과 선교와

구제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
가 될 것이다.

회를 거듭하면서 성숙한 대회
운영의 묘도 백분 살려 스포츠적
인 성격이 짙은 경기 종목 60퍼
센트, 레크리에이션적 프로그램
이 40퍼센트로 안배하면서 “은
혜와 진리” 속에서 경기가 진행된
다고 대회 집행위원회에서 다짐
하고 있다.

서로 연습하면서도 전력이 노
출되지 않도록 하는 연막도 볼
수 있으며 구기종목은 과거 현역
선수를 거친 프로들을 코칭스텝
으로 삼아 뜨거운 대 집전이 예
상된다.

■ 제3차 총현올림픽 개최사

뛰어라, 호흡 있는 자여!

신록이 우거진 초여름철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은 총현의
가족들이 민족의 자랑이 서린 올림픽공원에서 제3차 총현올림픽
을 개최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1세기의 여병기에 세계를 교구로 삼고 응비하는 총현의 가족
들이 내적으로는 모범적인 교회를 지향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사랑과 진리와 섬김의 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확인하려고 모이
게 되었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는 무엇보다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
무리 잘 달려도 이 수칙을 무시한 자는 경기장에서 퇴장을 당하고
얻을 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지키는 법을
금번 올림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주자는 자기 자랑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사람들은 지난날의
영화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미화해서 꿈 속의 유토피아처럼 승화
시켜 알지 못하는 사이에 향수에 젖어듭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미래를 향해 달리는 경주자의 진보에는 유익이 없습니다. 지난날
의 조그마한 성공과 자랑을 되씹으면서 삶의 진보보다는 담보를
하기 때문입니다. 과감하게 지난날의 성공과 자랑을 한꺼번에 묻
어버릴 용기를 가질 때 경주자는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경주자는 어떤 경우에도 좌절해서는 안됩니다. 지난날의 성공
과 자랑 뿐 아니라 실패와 좌절 또한 과거와 함께 물어버릴 결단
력도 있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수칙과 좌절을 집착하여 무기력하
게 실의에 빠지지 않고 모든 허물과 낭패를 물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전진을 재촉하는 경주자가 승리 할 수 있습니다.

경주자는 비전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경주자의 궁극적인 기점
은 현재의 조건보다는 미래의 비전에 있습니다. 이것이 경주자의
원동력이고 가속력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미래의 비전
이 없는 곳에는 침묵만이 있을 뿐입니다. 현재의 조건은 항상 미
래의 소망에 의해서 평가되고 그 표준에 의해 개선되어야 합니다.

총현올림픽에 동참하시는 모든 이들이 이와 같은 경기자의 정
신을 가지고 승리자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화목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거
를 기원합니다.

‘모였노라, 잡았노라, 이기었노라’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합시다.
이 중 운 목사

제4차 흥해작전 기도 제목 확정

흥해작전은 개인, 가정, 교회,
민족 앞에 놓인 흥해를 건너는 기
도 운동이다.

6월 6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
는 제4차를 맞는 흥해작전은 “은
혜와 질서”라는 주제 하에 “신앙
질서회복”, “창조질서보전”, “천
국시민질서실현”이라는 행동 강
령에 따라 전개된다. 교회 내적
으로는 사도적 신앙을 회복하고
외적으로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
로서의 정교도적 시민 생활을 이
루기 위해 “주일은 거룩하게, 생
활은 검소하게, 질서는 내가 먼
지”라는 표어도 정했다.

이제까지 실시된 세 차례의 흥
해작전은 새로운 영적 각성과 민

족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외 교회에 도전과 충격을 주었다.
이제 흥해작전은 개교회 부흥운

동의 사랑에 근거한 민족과 세계
를 위한 섬김의 운동으로 발전하
고 있다.

기 도 제 목

1.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은혜질서를 회복케 하시고 검소한 생
환을 하게 하소서.
2.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질서를 보전케 하시고 주일은 거룩하게 지
키게 하소서.
3. 성령의 도우심으로 허락하신 천국시민생활을 바르게 실현시켜
질서있는 세상을 만들게 하소서.
4. 갈라진 흥해를 믿음으로 보게 하사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개인
과 가정과 교회 위에 넘치게 하소서.
5. 성경적 가치관을 정착시켜 새로운 질서 운동으로 민족을 구원
케 하소서.
6. 혼란의 악령은 물리가고 질서의 영의 다스림을 받게 하소서.
7. 은혜로운 교회, 책임있는 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전국목사, 장로기도회 폐 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주관
으로 지난 5월 13일 우리 교회에
서 개최되었던 제28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모든 일정을 마
치고 16일 폐회하였다.

전국에서 2천여명의 목사·장로
가 참석한 가운데, 나라와 민족,
교단, 총회를 위해 기도하였다.

장년부 믿음 성장 위한 행사 마련

장년2부(부장: 김은호 장로)와
장년4부(부장: 김원선 장로)는
진리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생활
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오늘 성경암송대회를 갖는다.

장년2부는 빌립보서 4장을 중
심으로, 장년4부는 데살로니가전
서 5장을 중심으로 대회를 진행
한다.

한편 장년3부(부장: 마성락 장
로)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돌
리기 위하여 반별찬송가 부르기
대회를 개최한다.

초등1부 가족찬양부르기대회 가져



초등1부(부장: 김중구 장로)는
지난 12일 “가족과 함께 찬양”이
라는 가족찬양부르기 대회를 개
최하였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마련된
이 행사는 각 가정이 사랑을 확
인하고, 학부모가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었다.

제2회 총현 청년 복음화 대회 23일 개최

제2회 총현 청년복음화 대회가
오는 23일(목)부터 25일(토)까
지 갈릴리움에서 개최된다.

청년들의 영적 각성과 바른 신
앙관 확립, 상호간의 교제, 바람
직한 봉사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
여 대학부, 청년 1, 2, 3부가 연
합하여 복음화 대회를 갖기로 한
것이다.

이 대회에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기하라”는 주제 아래, “기
독교와 현대인의 결혼 생활”(박
성수 서울대 교수),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대화”(이동주 협성신학
원 교수), “기독교와 세계 종말”
(신복운 협동신학원 교수)에 관
한 강의가 있고, 이중윤 위임 목
사를 모시고 기획전단의 시간도
갖는다.

초등2부 5월과 6월 총력전도기로

초등2부(부장: 엄필성 장로)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주
제와 “내 옆에 새 친구들”이라는
표어아래, 6월 30일까지 총동원
전도대회를 갖는다.

이 전도대회를 위해 교사들은
하루 한 끼씩 금식기도하고 있으
며, 성경퀴즈, 인형극, 성극 등의
특별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성경 강해

이 중 운 목사

끝까지 사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13:1)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가 되는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세상

본문에는 세상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 윈어 성경을 읽어보면,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영어 단어이기도 한데, 이것은 “우주, 세계 시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백팔십 다섯번이나 나오는데, 그 중에서 백다섯번은 요한 사도가 사용한 것입니다. 특히 요한 사도는 이 복음서에서 세상이라는 말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상에서 믿음지키며 복음을 증거해야

첫째, 일반적으로 세상은 공간적인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꽃이 피고 새가 울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자연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상이란 이와 같은 공간적인 의미로서의 세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3:16)에 있는 세상은 인간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으로서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강아지나, 풀잎을 회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셋째, 본문에 기록된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과 같은 의미로 본문을 풀이한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을 떠나시고, 인간 가운데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세상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 악의 세력이 주장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의 세력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끌려가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곳입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자연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세상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들은 악의 세력이 다스리는 세상의 습관, 가치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를 따라가야 합니다.

2. 일반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분의 사랑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

고 계시는가를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주만상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보존시켜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서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악의 세력에서 건지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 선택적인 사랑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적인 사랑과는 대조적으로 특별히 베푸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선택적인 사랑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가치가 있고 고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다락방에 모인 12제자에게 향하신 사랑의 고백이요,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온전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신랑으로 표시하고 교회를 신부로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신부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뛰고 은혜 충만한 벅찬 감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최후의 만찬은 유

월절 전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을 읽어보면, 유월절을 기념하는 잔치가 한창일 때 베풀어졌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대기가 잘못된 데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용하는 달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바리새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공관복음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과 44절에 기록된 대로 하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이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특별히 주신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요6:37)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요6:44)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그것을 아들에게 맡기시어 멸망으로부터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아들에게 맡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요14:16,17)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들을 진리에로 이끌어 주십니다. 인간은 너무나 나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끌려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을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그 은사를 따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 우리들을 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니라”(요15:16)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4.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주님께서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셨으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성부께서 맡기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이웃에게 이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너희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14:2,3)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죽음 너머에서까지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시기 전,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을 외롭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런데 우리들은 가끔 “하나님께서서는 왜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어리석은 질문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미움과 시기과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처럼 부가치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5:8) 따라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동하신 사랑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 위원회를 찾아서 - 구제위원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목표 중의 하나인 빈약한 자 구제를 위하여 두 달에 한 번씩 구제헌금을 하고 있다.

주간 중헌에서는 우리 교회의 모든 구제 사업을 총괄적으로 기획, 시행하는, 보이지 않는 손 구제위원회를 찾아보았다. 구제위원회는 현재 위원장 노광원 장로 외에 김창수 목사 외 지도로 6명의 위원 장로들이 수고하고 계신다. 다른 위원회와 비교해볼 때 그 구성 인원이 적다는 느낌도 들지만, 그 인원만 해 여러 가지 일들을 알게 모르게 수행하는 곳이 바로 구제위원회이다.

구제위원회의 사업은 크게 대내와 대외 구제로 나뉜다. 대내 구제는 말 그대로 중헌교회 내의 교인들을 상대로 한 구제 활동으로 정기적으로 연말에 즈음하여 분우한 중헌의 식구들을 돕고 있

고 긴급 재난이라 하여 중헌의 식구 중에 홍수나 화재 등을 당한 경우에 그들을 돕고 있다. 특히 지난 해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던 일산 지역에 거주하는 중헌 식구들을 도왔던 예가 대내 구제의 예가 된다.

한편 대외 구제는 긴급적인 사태시에 대외적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일정한 심사 후 구제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어려운 형편의 교회나 병원, 신문 배달원, 환경 미화원, 노인정, 교도소 등에 사랑의 손길을 뻗는 경우이다.

구제위원회는 이와 같은 구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우리 교회의 큰 행사 중 하나인 장애인을 위한 바자회도 주관하고 있다. 이 바자회는 회를 거듭하면서 이웃과 나누는 의미뿐만 아니라, 중헌 식구들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데도 큰 몫을 하고 있어 구



제위원회는 이 자선바자회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배다부, 사랑부 등의 특수 교육 부서들이 구제위원회와 좀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 효과적인 구제 활동을 전개해나간다고 한다.

올해에는 형식적인 구제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는 구제위원회에서는 중헌의 식구들에게 구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세를 당부했다.

구제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일부분을 떼어내는 희생이 따르는 만큼, 자신의 분량만큼을 열심을 다해 동참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향기가 더 널리 드날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 선교지 소식(5) - 파키스탄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비자문제와
병원결정 해결 위해
기도 부탁

89년 겨울, 대학생선교회와 우리 교회가 공동으로 파송했던, 파키스탄 의료선교팀은 회교권국가인 파키스탄을 복음화 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다.

선우형식, 조세진, 상원기, 김창관, 김기자, 천혜경, 좌영희, 조경련, 배은희 선교사는 파키스탄의 우르두어 습득을 위해 특별히 시간을 내어 언어 훈련을 한다.

파키스탄의 영적 자도자들이 선교사들을 께박하여 추방당할 위험에 처하기도 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힘입어 전화위복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선교팀은 복음 전파 사역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파키스탄인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성경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르게 전한다. 또 회교도들에게 직접적인 전도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로 양육시켜 그들에

게 동족 복음화를 자극하고 있다.

파키스탄 입국시 발급 받았던 여행 또는 문화비자를 취업비자로 변경, 발급 받을 때까지 선우형식 선교사와 조세진 선교사는 유나이티드 크리스찬 병원에서 환자진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병원은 간호학교와 엑스레이 기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복음을 뿌리고 양육시킬 좋은 못자리판으로 기대된다.

◆ 기도제목

1. 선교사와 가족들이 기도와 말씀 안에서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2. 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3. 하루 빨리 비자 문제가 해결되고, 선교지역과 병원이 결정되어 복음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4. 우르두어에 하루 속히 익숙해지도록.

독자의 난

사랑하는 부모님

해마다 5월은 두 분의 사랑처럼 아름답기만한데, 저는 두분의 그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을 그저 받고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3이라는 말할 수 없는 중압감으로 괴로웠던 작년, 조용히 그러나 따스한 눈길과 마음으로 지켜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제이 기쁨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오로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부모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이 세상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는 부모가 되어 보아야 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 아름다운 5월 어버이날, 연이어 내리던 비마저 그치고 맑고 화창한 날씨로 주님께서도 두 분의 사랑을 치하하신 이 날, 비록 글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당신 자신들에게 보다 저희들에게 무엇이든 해주시기를 원하시던 아버지, 어머니. 지난 해 고3이라며 마구 어리광

김 자 영 학생(대학부 1년)을 부리고 매를 쓰던 저를 항상 위로해주시고 힘을 주시던 두 분의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생이 되고서도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오히려 더 말 안 듣는 딸노릇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도 저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한없는 사랑으로 지켜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딸로서, 두 분의 사랑스런 딸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두 분의 기쁨과 자랑이 되겠습니다. 제가 바르지 못한 길로 가게 되면, 저를 꾸짖어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딸 하나 만큼은 잘 키웠다는 얘기를 하실 수 있게 아름답고 멋지게 살겠습니다. 염치가 없는 부탁이지만 앞으로 그 끝없는 사랑으로 저를 지켜보아주세요.

두분께 저의 모든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독자 제언

● ● ● ●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어려서 부딪친 순간의 놀라움은 때로는 큰 충격으로 잠재의식 속에서 상처로 남아 고정 관념화되어, 불필요한 고정으로 자리나는 동안 작지 않은 불편함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제 아이를 탁아부에 맡기면서 "아이가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아이가 예배에 임하는 기본자세를 배울 수 있을까, 과연 돌보아주시는 선생님은 어느 정도 견제를 지니신 분일까, 공평하실까, 엄마 길을 거의 한 순간도 떠나본 적이 없는 어린아이가 익숙한 이쪽 편에서 미지의 저쪽 편으로 옮겨질 때 행여 놀라움에 엄마 걸을 떨어지지 않으려는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와 더불어 교회의 뜻을 따라 아이가 탁아부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아이의 감정을 살펴며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몇 주 지나지 않았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담당 선생님, 아이, 그리고 저희 부부의 마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환



경에 잘 융화되었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변화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나오는 변화였습니다. 우선 아이는 비록 어색한 반응이었지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라며 찬송하고 탁아부에서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 했습니다. 또 선생님은 아이가 꼭 그 시간에 와주기를 기다리며 만날 때마다 더욱 더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남편의 마음에 탁아부 선생님들의 환영하는 모습이 살아져, 그 시간만 되면 스스로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오기를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과 저는 조용한 가운데서 더욱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탁아부의 역할은 온 가정

남 명 숙 성도(탁아부 학부모)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조용한 예배는 영적으로 변화받을 수 있으며, 그 영향을 곧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탁아부의 역할이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부족으로 참다운 교육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들의 무관심과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는 이러한 모순을 발견해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 변화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하나님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수고를 선택하신 탁아부의 모든 용기 있는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탁아부가 예수님의 밭에 하나의 비유처럼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3차 충현올림픽

“모였노라 잡았노라 이기었노라”

즐거운 천국잔치 기대

충현인들을 위해 즐거운 하루가 마련되어, 우리들로 하여금 설레이는 마음으로 개막을 손꼽아 기다리게 한다.

이미 3개월 전부터, 올림픽 집행위원회(위원장 우기전 장로)가 조직, 가동되고 있으며, 위원장과 기획, 경기, 지원본부와 실무부서가 대회에 필요한 준비들을 해왔다. 오늘 마지막 총집회를 위한 회의가 끝나게 되면 대회를 위한 준비 작업이 완료 상태가 된다. 올림픽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기도회가 20일 새벽기도회 후에 배다나홀에서 열린다. 교역자, 전원, 집행위원, 각 실무부서 부장, 각 팀의 관계자 전원은 기도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이 대회의 개막 행사를 빛내기 위하여 ‘충현 올림픽기’ (길이 4m, 폭 2m)를 특별히 제작하였으며, 이를 각 팀의 대표들이 높이 들고 행진함으로써, 충현교회의 성장을 상징하면서 감사하는 순서가 마련되어 있다.

또 하일라이트인 가장행렬의 주제도 복음적인 테마로 구성·연출하였으며, 각 팀은 의상준비와 연습에 꺾침을 올리고 있다.

각 팀의 가장행렬에 이어 60명의 선수단이 총감독 인솔 하에 보무(步武)도 당당하게 입장하여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을 것이다. 스포츠 경기에는 승자에게는 갈채가, 패자에게는 위로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주님 안에서 치르게 되는 이 올림픽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한데 어우러져 넘치는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이다.

이제 일반오전방 수용이 가능한 맘모스 스타디움에서 빈치질 한희와 영광과 승리의 큰 잔치를 준비하는 각 팀 임원들의 축하표를 들어본다.

명코치와 선수들 승리 다짐

밀음팀 단장 최상규 장로
오직 믿음으로 행진하면서 승리를 다짐한다.

선수선발도 신중하였지만, 각 경기의 코치진 인선작업에 주안점을 두었다. 짧은 시일안에 연습하므로 명코치와 그 선수들이 이것이 우리팀의 자랑이다. 특히 족구에서의 우승을 기대한다.

우리 팀에 라이벌은 없다.

소망팀 부단장 이병학 장로
우리에게 라이벌은 없다. 스포

츠 정신으로 밀어부치 종합우승을 위해 전력할 것이다.

내 개 교구가 뚝뚝 뚫려 팀화를 다졌으며, 땅과 수교의 결실을 기필코 거둘 것이다.

특히 이제로운 응원에 힘을 얻으면서 용에움을 시지한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팀 총감독 손경수 장로
관공이 붙은 응원진, 특히 구기경기에 강세를 보인다고 장담. 특히 가상행렬은 화합과 일치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펼쳐 보이겠다.

종합 우승만이 표적

충성팀 단장 오태희 장로
가장 연습을 빨리 시작했으며, 각 경기에서의 최고 득점작전을 펴고 있다. 선수 선발에도 신중을 기해 주전으로 기용하면서 종합우승만을 표적으로 삼았다.

사전에 알아둬시다

8시 30분까지 입장 완료

◎...대회 장소인 올림픽 제1체육관(충과구 방이동)에 8시 30분까지 입장이 완료되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성도들이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입장 시간을 엄수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입장료는 교회

주차비는 개인부담

◎...미스를 이용한 경우 ‘올림픽 선수촌 2단지 아파트’ 앞에서 하차하여 동2문으로 들어간다.

◎...승용차는 동2문, 남2문, 북2문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1체육관 주차장에 주차한다. 주차비는 5백원으로 개인이 부담한다.

◎...올림픽공원 입장료는 교회가 부담한다. 정문 입장시 “충현 올림픽 참가자”라고 하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도시락은 가정별로 준비

◎...각 지점에서 도시락을 준비하여 다라방별로 함께 먹을 때, 교세를 나눈다. 대회 장소에서는 비너 등 취사도구는 사용할 수 없다.

의무실도 개설

엠브란스 대기

◎...참가자들이 불의에 당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의무실을 개설하고, 전문의, 한의사, 약사, 간호사를 대기시킨다. 또한 인근 강남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의 구급차도 대기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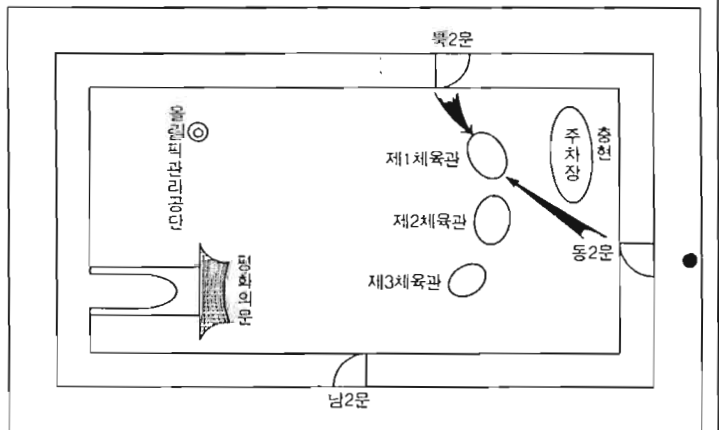
지정된 유니폼 제공

◎...집행위원회는 참가자들이 보다 편안한 자립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팀별로 지정된 유니폼(상의)을 제공한다. 신발은 운동화를 신는다.

피켓걸은 제10교구 신나미 양

충현올림픽 개최식 행사 때 충현 피켓걸은 신나미양(제10교구)으로 선정되었다.

신나미 양은 신현걸, 이학자 집사의 딸로서 이화여대 교육심리학과 재학중인 재원인 바, 현재 시온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 각 팀 임원 및 선수 <

종목	팀명	밀 음 팀(황)	소 망 팀(청)	사 랑 팀(홍)	충 성 팀(녹)
교구		4, 8, 9, 16	2, 6, 10, 14	3, 7, 11, 15, 17	1, 5, 12, 13, 18
단 장		최 상 규	윤 명 석	김 은 호	오 태 희
부 단 장		김천제, 최무길, 송기홍	마성락, 김원선, 이병학	이 훈, 문홍구, 이종국	김광신, 정하우, 이영세
총 감 독		윤 성 철	최 대 원	손 경 수	이 창 호
응 원 단 장		황 현 철	함 철 주	김 승 배	김 춘 권
피 켓 걸		방 지 영	김 규 자	김 승 욱	미세스 마엘스
가 장 행 령 제 목		예루살렘입성	홍해작전	제4차 홍해작전	세계를 교구로
천국열차릴레이		이현재외 27	정선현외 29	탁경매외 29	이덕규외 29
배 구		(남) 구재일외 6 (여) 이현숙외 1	(남) 차광민외 6 (여) 이장순외 1	(남) 박명택외 6 (여) 정미재외 1	(남) 박강선외 7 (여) 서해강외 3
족 구		최종세외 4	고영수외 4	김명철외 5	최준석외 4
무 지 개 따 오 기		(남) 이승재외 69 (여) 이주형외 69	(남) 김용대외 69 (여) 윤경미외 69	(남) 이병석외 69 (여) 장남희외 69	(남) 김영규외 69 (여) 엄미순외 69
농 구		청1, 2, 3부	고등부, 대학부	고등부, 대학부	청1, 2, 3부
4인 2각릴레이		(남) 임부섭외 11 (여) 심효숙외 11	(남) 장규석외 11 (여) 이소규외 11	(남) 전홍현외 11 (여) 신영희외 11	(남) 이종국외 11 (여) 이현주의 11
피 구		오영숙외 29	이영숙외 29	김희선외 29	이인숙외 29
성 전 돌 나 르 기		(남) 최형철외 9 (여) 구자람외 9	(남) 영광호외 9 (여) 조남숙외 9	(남) 김시주외 9 (여) 강동희외 9	이병영외 9
육 상 단 거 리		(남) 최은현외 5 (여) 박현정외 5	(남) 정원석외 5 (여) 허경미외 5	남 5 여 5	(남) 김대웅외 4 (여)
경 보 릴 레 이		장혜순외 11	배옥인외 11	김정자외 11	정복인외 11
장 애 물 경 기		김찬곤외 11	김성윤외 11	김화진외 11	강광수와 11